

# 以母字의 성모 양상에 대한 통시적 고찰

- 형성자를 중심으로 -

장 천(전북대)

## <목 차>

1. 들어가기
2. 15·6세기 문헌에 나온 以母 形聲字 및 以母字의 수용 양상
  - 2.1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
  - 2.2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
3. 以母 形聲字 및 以母字의 성모 양상 유형
  - 3.1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 성모 양상 유형
  - 3.2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 성모 양상 유형
4. 나가기

## 국문초록

본고는 ‘以母’ 성부인 형성자의 본래음을 찾고 以母字의 성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설명하고, 또한 성부의 성모는 以母가 아닌 以母字 및 중세 한국어에서 以母字의 성모 양상은 단일 형태로 나타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복수형태로 나타난 것에 대해 다루었다.

논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한자가 있지만 본고는 논의의 자세함을 위하여 15·6세기와 현대 한국어 한자음 가운데 성모가 以母에 속하는 것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5·6세기와 현대 한국어 한자음 가운데 성모가 以母에 속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15·6세기 以母字는 주로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

성자와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형성자가 있다. 以母의 음가는 [ø]로 재구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음가는 [o]이다. 형성자의 제자 원리에 따르면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의 성모는 ‘o’로 되어야 하지만, 以母字의 형성자 성모는 치조 파열음인 ‘ㄷ, ㅌ’, 치조 마찰음인 ‘ㅅ’, 후두 마찰음인 ‘ㅎ’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以母의 본래음 /d/와 /g/가 중고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글자는 以母로 변화되고, 일부 글자는 古音을 유지하고, 일부 글자는 以母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의 음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성부의 성모가 以母가 아닌 형성자, 즉 설두음인 透母와 설상음인 澄母, 치음에 속한 치두음인 從母와 정치음인 章·書母 중 일부 형성자가 以母字가 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以母의 본래음과 透母, 澄母, 從母, 章母, 書母의 본래음이 서로 유사해서 통용되었거나, 중고음에 와서 일부 글자가 以母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마지막으로 어떤 以母字는 중세 한국어에는 성모가 단일 형태로 나타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고음의 성모 양상과 동일하였다.

핵심어 : 以母字, 본래음, 중고음,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 1. 들어가기

한국어는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자어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다. 한글 표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든 글은 한자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소리의 뿌리를 찾으려면 한자어 연구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국어학계에서는 한자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학계에서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한 形聲字를 위주로 다른 시각에서 한국 한자음을 다루고자 한다. 형성자의 制字 원리는 두 개 이상의 글자가 모여 하나의 새로운 글자를 이루는 것으로 각각 글자는 음을 담당하는 聲符와 뜻을 담당하는 形符로 구성된다. 또한 새로운 글자의 성모는 성부의 성모와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어 성모체계 변화에 따라 聲符의 성모와 일치하지 않는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점점 확대되었다.

中古音 뿐만 아니라 중세 한국어를 보면 聲符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부 ‘予’의 성모는 以母이다. 野(야), 預(예), 豫(예)의 성모는 ‘ㅇ’로 나타난다. 그러나 序(서), 抒(서), 紓(서), 苧(서)의 성모는 ‘스’로 나타나고 杼(더)의 성모는 ‘ㄷ’로 나타난다.

한국 한자음의 母胎說은 다양하나 대개 중고음에 있다는 설에 치중하고 있다. 竺家寧(1992:293-301)에 의하면 중고음에 나타난 以母의 음가를 Karlgren, 董同龢, 陳新雄 등은 零聲母로 재구하고 王力은 [j], Pulleyblank는 [y]로, 李方桂가 [ji]로 재구하였다. 학계에서 以母의 음가를 零聲母로 재구하는 것은 公認한 것이다. 零聲母의 음가는 한국어 자음체계에서 ‘ㅇ’에 해당한다.

이기문(1962)에 의하면 ‘ㅇ’의 음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두음이 모음임을 표시하거나 어중에서 두 모음 사이에 사용되어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함을 표시하고 현대 한국어 초성에 나타나는 ‘ㅇ’으로, 零과 같다. 다른 하나는 /ㄹㅇ/과 같이 자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以母 성모의 음가는 전자에 해당한다. 만약에 한국 한자음의 모태가 중고음에 있다면, 以母字의 음가는 [Ø]인데 중세 한국어 자음 체계에 따르면 以母字의 성모는 [ㅇ]으로 나타나야 한다.<sup>1)</sup> 그러나 현대 한국어

1) 중고음에 喻母는 주로 3, 4等字이다. 喻母 3등은 云母이고 喻母 4등은 바로 以母이다. 문선규(1987:211)는 喻母 4등을 餘母로 부르고 이토지유키(2011:182)는 이를 羊母라고 부른다. Karlgren, Pulleyblank, 董同龢, 周法高, 李方桂 등 재구한 중고음 성모체계에서 喻母 4등을 以母로 부른다. 본고도 이에 따라 喻母 4등을 以母라고 한다.

한자음을 보면 以母字의 성모가 ‘ㅇ’ 이외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도 있다. 또한 형성자의 제자 원리에 따르면 같은 성부 계열의 형성자는 원칙적으로 성모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以母인 ‘予’ 계 형성자의 성모는 ‘ㅇ’, ‘ㅅ’, ‘ㄷ’ 3가지 양상으로 수용되었다. ‘予’계 형성자의 성모 양상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는 형성자 계열의 한자들 중 같은 성부를 가진 한자들의 본래음을 찾고 성모의 변화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과 중세 한국 한자음의 성모 불일치에 대해 해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줄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15·6세기 및 현대 한국어 한자음 중 以母字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 한자어의 본래음을 찾기 위해서는 고대 한국어로 기록된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고대 한국어 기록 자료가 아주 제한적이다. 때문에 부득이 중세 한국어를 토대로 거슬러 올라가 중세 이전의 음을 찾고 다시 중세 한국어 한자음과 현대 한국어 한자음을 다루겠다.

본고는 중세 국어 자료인 『六祖法寶壇經諺解』, 『翻譯小學』, 『小學諺解』, 『訓蒙字會』, 『新增類合』, 『論語』, 『孟子』 등 자료 중에서 나타난 以母字들을 추출하고 추출한 以母字 중에서 성부가 같은 한자를 한 계열로 정리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2. 15·6세기 문헌에 나온 以母 형성자 및 以母字의 수용 양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15·6세기 문헌에 나온 以母字를 모두 찾고 성부가 같은 글자끼리 묶고, 다시 <說文通訓定聲>과 <說文解字注>를 통해서 형성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자 중에는 같은 성부의 형성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성부인 한자가 있다. 예를 들어 𪛗는 爰 ·

鑰와 같이 성부가 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설문해자주>를 확인하면 ‘從隸禾聲’로 되어 있어 성부가 ‘禾’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한자는 중세 문헌에는 출현하나 <설문통훈정성>이나 <설문해자주>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성부가 延인 縱는 『소학언해』에 ‘연’으로, 暢은 『신증유합』에 ‘탕’으로, 迨는 『맹자』에 ‘티’로 나타나지만 <설문해자주>에는 없는 한자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자는 <설문해자주>에는 以母 형성자이지만 중세 한국어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자 ‘筱’는 <설문해자주>에서는 ‘從竹攸聲’으로 되어 있지만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이 한자의 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 세 가지 경우의 한자들을 연구 대상에서 배제한다.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추출한 以母字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이다.

## 2.1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

<표1> 성부가 以母인 형성자

성부	비음 <sup>2)</sup>	마찰음		파열음	
	ㅇ	ㅅ	ㅎ	ㄷ	ㅌ
予	野(야) 預(예) 豫(예)	抒(서) 序(서) 紆(서) 苻(서)		杼(더)	
余	餘(어) 蝮 <sup>3)</sup> (어)	徐(서) 敍(서)		除(데)	
叟	諛(유) 庾(유) 莠(유)				
兪	楡(유) 踰(유) 窳(유) 楡(유) 愈(유) 噓(유)				
攸	悠(유)				

由	油(유) 柚(유) 融(유)				妯(투) 軸(투) 舳(투)
延	筵(연) 筵(연) 延(연) 涎(연)				誕(탄)
寅	演(연)				
易		謁(석) 錫(석) 賜(스)			謁(택) 惕(택) 剔(택) 惕(택)
易	楊(양) 揚(양) 揚(양) 陽(양)	饒(성) 觴(상) 傷(상)		腸(당) 場(당)	湯(탕) 蕩(탕) 盪(탕) 蕩(탕)
羊	烜(양) 洋(양) 恙(양) 佯(양)	詳(상) 祥(상) 庠(상)			
俞	爰(약) 鑰(약) 籥(약)				
夜	液(익) 腋(익) 掖(익)				
罍	譚(역) 驛(역) 繹(역)	釋(석)			擇(택) 澤(택) 鐸(탁)
庸	傭(용) 壟(용)				
甬	勇(용) 踊(용) 涌(용) 蛹(용) 俑(용)	誦(송)			通(통) 痛(통) 桶(통)
夷	姨(이)			萸(데)	浹(테)
也	弛(이) 匱(이) 迤(이) 施(이)	施(시)			
亦	奕(역)		奕(혁) 奔(혁)		
繇			繇(홀) 謫(홀) 鷓(홀/물)		

- 2) 현대 음성학 용어에 따라서 ‘ㅇ’을 비음으로 처리하되, 실제 중세 한국어에 ‘ㅇ’은 후음이고 곧 ‘ㅎ’과 같은 계통의 소리이다. 즉 이는 후두 마찰음이다.
- 3) <훈몽자회>에서 ‘두터비 여’로 풀려 있으나, 현재 한국어에서는 ‘서’이다.

<표1>에서 제시한 한자들의 성부의 성모는 모두 以母이다. 성부가 같지만 그 계열에 나타난 한자의 성모는 ‘ㅇ’ 이외에 치조 파열음인 ‘ㄷ’, ‘ㄷ’ 및 치조 마찰음인 ‘ㅅ’, 후두 마찰음인 ‘ㅎ’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부 ‘易’의 경우에 以母인 한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場(역), 陽(역)’은 <설문해자주>에서 ‘從X易聲’으로 되어 있으나 중세 한국어 문헌에 두 한자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성모가 ‘ㄷ’로 나타난 ‘杼’, ‘除’의 경우에도 각 한 개의 한자만 출현한다. 성모가 ‘ㄷ’로 실현된 ‘予’, ‘余’ 계열의 다른 형성자가 <설문해자주>에 출현하긴 하지만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도 그 한자의 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한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성부가 ‘俞’인 鑰는 『훈몽자회』에 ‘듀’로 되어 있으나 현대 한국어에는 ‘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해자>에는 ‘鑰’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부 ‘俞’인 형성자의 성모 양상은 단지 ‘ㅇ’로 나타난 것만 다루고자 한다.

<표1>에 제시한 내용을 보면 성부의 성모가 以母와 통용(互譜)할 수 있는 성모는 주로 치조 마찰음 및 성문 마찰음, 그리고 치조 파열음이 있다. 즉 한국 한자음에 以母字 성모는 치조 및 성문 마찰음, 그리고 치조 파열음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2.2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

<표2>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 형성자

성부	비음	유음	마찰음	파열음	
	ㅇ	ㄹ	ㅅ	ㅌ	ㅍ
台(透)	治(야) 怡(이) 胎(이)				
蟲(澄)		融(룽)			
酋(從)	猶(유) 獸(유) 輜(유)ᄃ				
佳(章)	惟(유) 維(유)				

	唯(유)				
詹(장)	簷(첨)('檐'의 이체자)				
失(수)	佚(일) 洸(일)				
谷(견)	欲(옥) 浴(옥) 慾(옥) 裕(유)				
戈(견)	杙(익) 鳶(연)				
粵(양)					桄(빙)
				鞞(테)	
			蠅(승)		

<표2>에 의하면 성부의 성모는 以母 이외의 성모이지만 그 형성자의 성모는 以母인 글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자의 원리에 따르면 형성자의 성모가 원칙적으로 성부의 성모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표2>에 제시한 형성자들의 성모는 以母字의 음가에 따라 ‘오’로 나타난 것도 있고, 성부의 성모와 달리 유음인 ‘구’, 마찰음 ‘스’, 파열음인 ‘브’ 및 치조 파열음인 ‘트’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도 있다. <표1>에 제시한 것과 달리, <표2>에 제시한 것은 성부의 성모가 ‘오’가 아닌 以母字이다. 한자의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형화’라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예외로 처리하였다. ‘蠅’은 『훈몽자회』에 ‘승’으로 되어 있으나 <설문해자주>에는 會意字로 기록되어 있고 ‘鞞’는 <설문해자주>와 <설문통훈정성>에 모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성부 ‘승’의 성모가 중고한음에서는 又音字<sup>5)</sup>이며, 그의 성모가 以母와 透母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한자음에서 ‘승’계 형성자의 성모도 주로 ‘오’와 ‘트’로 수용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 문헌에 나온 ‘승’은 ‘티’

4) <훈몽자회>에는 ‘츄’로 나타난다.

5) 한자가 분화에 의해서 분화된 후에 두 개의 음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 두 음 중에서 又音은 그 한자의 본래음을 가리킨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자가 A와 B란 음이 있고, A는 중고음이고 B는 又音이라면 B이란 음이 A보다 그 전에 있는 음을 말한다.

로 나타나고 그의 성모는 透母이다. 따라서 본고는 ‘台’계 형성자를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성부 ‘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부 ‘臺’와 ‘谷’처럼 성부의 성모가 두 개인 경우는 <표1>에 제시한 성부에도 나타나며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표2>에 제시한 以母字의 성모는 주로 설두음인 透·澄母, 치두음인 從母, 정치음 3등음인 章·書母, 아음인 見·溪母, 순음인 滂母가 있다. 이런 한자음들이 진정한 예외인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 3. 以母 형성자 및 以母字의 성모 양상 유형

<표1>과 <표2>를 보면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는 주로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와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 두 종류가 있다.

#### 3.1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 성모 양상 유형

중고음에 以母의 음가는 [o]이기 때문에 중고음을 수용한 한국 한자음은 성모가 [o]로 나타나야 한다. 성부가 같은 형성자는 성모도 같아야 한다는 형성자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보면, 以母 형성자는 모두 ‘o’음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의 성모는 ‘o’이지만, 그의 같은 계열의 다른 형성자의 성모는 마찰음인 ‘s’와 ‘h’, 파열음인 ‘c’와 ‘t’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형성자의 제자 원리에 만족하려면 그들의 성모가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한국 한자음의 성모 ‘o’과 치초 마찰음인 ‘s’, 후음 마찰음인 ‘h’, 치초 파열음인 ‘c’와 ‘t’은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창원(2014:3)에 의하면 통시적 변화의 기본과정은 생성과 소멸 그리고 영역의 변화이다. 생성은 주로 분화에 의해서 새로운 음이 생기고, 소멸에 의해서 어떤 음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중고음에 있는 以母의 실체를 찾으려면 중고음 이전의 성모체계를 알아야 한다. 상고음의 성모체계는 주로 黃侃이 주장한 19紐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19紐 성모체계에는 以母란 성모가 없다. 그렇다면 중고음에 나온 以母가 상고음 성모체계의 어떤 성모에서 분화된 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중고음에 以母 형성자들의 성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1>에서 제시한 ‘오’로 나타난 以母字의 한국 한자음 수용 양상과 중고음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성모가 ‘오’로 나타난 以母 形聲字

한자	중세 한국어 한자음	중고 성모	又音	又切	출처
予	여	以		弋諸	<訓下 10b>, <小四 17b>
		以		餘佇	
野	야	以		承與	<訓上2b>, <讎七 16b>
		禪		與者	
預	예	以			<讎七 35b>, <小五 67b>
豫	예	以			<讎七 4a>, <小四 30a>
余	여	以			<讎六 20a>, <小五 18b>
		禪		以諸	
餘	여	以			<六上 7b>, <讎三 6a>
鯨	여	以		常魚	<訓上 12b>
與	유	以		求位	<論四 16a>
		羣		羊朱	
諛	유	以			<讎九 39b>, <小六 36a>
庾	유	以			<六上 50b>, <讎九 72a>
兪	유	以		恥呪	<小一 3b>
愉	유	以			<小二 9a>
踰	유	以			<讎三 31b>, <小二 63a>
窩	유	以		度侯/徒候	<論四 37b>

		定		徒候/羊朱	
		定	俞	度侯	
榆	유	以			<訓上 5b>
愈	유	以			<黷三 46a>, <小六 21a>
喻	유	以			<六中 59a>, <小四 35a>
由	유	以			<六下 13a>, <黷三 19b>
油	유	以		余救	<訓中 10>, <類上 26b>
		以		以周	
柚	유	以		直六	<訓上 6b>
		澄		由舊	
羊	양	以			<訓上 10a>, <六中 68a>
烱	양	以			<訓下 7b>
洋	양	以	祥		<訓上 3a>, <類下 38b>
		邪		與章	
恙	양	以			<黷小 72b>, <小六 67a>
佯	양	以		在良	<小四 25a>
燖	약	以		書藥	<訓下 6b>
		書	藥		
鑰	약	以			<訓中 8b>, <類下 43a>
籥	약	以			<訓中 16a>
譯	역	以			<<黷四 1a>
驛	역	以			<訓中 5a>, <類上 19a>
繹	역	以			<訓下 8b>, <類下 37b>
夷	이	以			<訓中 2b>, <類下 15b>
萑	데	以		杜奚	<訓上 5a>
		定		以脂	
姨	이	以			<訓上 16b>, <黷九 50a>
洩	테	以		他計	<小6b>
		透		以脂	
也	야	以			<黷六, 8b>, <類下 63a>
弛	이	書			<訓下 5a>, <類下 18b>
匱	이	以		羊氏	<訓中 7a>, <小二 6a>
		以	移		
施	이	以		式支/施智	<黷六 25a>, <小五 23a>
	시	書		式豉/以寘	<黷三 13a>, <六上 101b>
		書		式支/以豉	

亦	역	以			<讎四 12a>, <小四 11a>
突	역/혁	以			<讎十 23a>, <類下 55b>
奔	혁	以			<訓中 9b>
緜	홀	以	橘		<訓中 9b>
		見		餘律	
謫	홀	見			<讎六 30b>, <類下 5a>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중세 한국어 형성자의 성모는 대부분은 ‘o’로 나타나지만 ‘o’ 이외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고음에도 그 한자들의 성모는 두 개 이상의 경우가 있다. <표3> 중, 성모가 여러 개 양상으로 나타난 한자를 대상으로 성모를 분류하면 주로 以母와 舌音인 透·定母(설두음) 및 澄母(살상음), 치음인 邪母(치두음)·書·禪母(정치음), 아음인 見母는 나타났다.

### 1) 以母와 설음

<표4> 以母와 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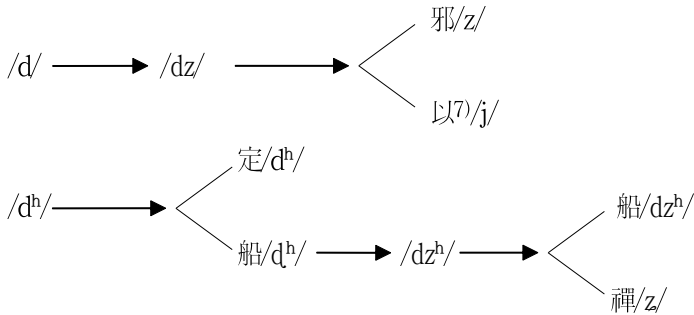
한자	중세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어 한자음	字母	又音	又切
洩	테	이	tì	以		他計
		체	tì	透		以脂
蕙	데	이	yí	以		杜奚
		제	tí	定		以脂
窩	유	유	yú	以		度侯/徒候
		두	dōu	定		徒候/羊朱
dōu	定		俞		度侯	
備	용	용	yōng	以		丑凶
		충	chōng	徹	容	
柚	유	유	yòu	以		直六
		축	zhóu	澄		由舊

<표4>에서 제시한 洩, 蕘, 備, 柚은 성부의 성모가 모두 以母인 형성자이다. 중고음에 以母의 음가는 [ɔ]이며, 중고음을 수용한 한국 한자음은 以母 성모를 ‘o’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는 치조 파열음으로 나타난 것도 있다. 또한 형성자의 원리에 따르면 <표1>에서 제시한 以母 형성자들의 성모는 모두 ‘o’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以母 성부의 형성자 성모 양상은 ‘o’ 이외에 파열음인 ‘t’와 ‘tʰ’로 나타난 것도 있다. <표4>에 제시한 중고음을 수용한 중세 한국어 한자음에서 일부 以母 형성자의 성모는 치조 파열음으로, 일부는 영성모인 단일 형태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는 치조파열음과 零聲母 두 유형이 모두 나타난다.

漢語 학계에서 以母(즉 喻母)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黃侃은 喻母가 影母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못하였다. 형성자를 보면 以母 성부는 설두음인 端, 透, 定母와 통용된다. 형성자의 제자 원리에 따르면, 以母가 상고음의 설두음에서 분화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설이 아니다. 陳新雄(1983:1023)은 喻母의 상고음은 定母와 같다는 曾乾運의 주장은 입증이 되나 定母의 음가와 똑같이 재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Karlgren이 喻母의 상고음은 定母와 비슷하지만 유성 유기음인 定母 [dʰ]와 구별하기 위해 그 음가를 유성 무기음인 [d]로 재구하였다.

陳新雄(1983:1173)은 6世紀 쯤의 설상음인 澄母는 설두음인 定母에서 분화된 음이라고 하였다. 만약에 以母의 古音<sup>6)</sup>을 定母와 똑같이 유성유기음 [dʰ]로 재구한다면 澄母와 以母의 분화 과정에 대해 같다고 설명해야 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文璇奎(1987:241-245)도 以母의 고음과 定母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有無氣의 차이로 주장하였다. 필자는 以母의 음가는, 定母가 아닌 定母와 비슷한 음[d]로 재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以母가 상고음에서 분화된 이전의 음을 古音이라고 기술한다.



<도1> /d/와 /dʰ/의 차이 및 분화 과정

<도1>을 통해서 以母와 설두음인 [d]와 [dʰ]의 관계를 일목요인하게 알 수 있다. 以母의 본래음은 상고음에 있는 유성 무기음인 [d]이다. 따라서 <표4>에서 제시한 夷계 형성자의 성모가 치조 파열음인 ‘ㄷ’와 ‘ㅌ’로 나타난 것은 분화 과정을 겪지 않고 以母의 고음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또한 성모가 以母이지만 <표1>에서 제시한 予계, 由계, 易계, 易계, 畢계 및 甬계의 형성자의 성모가 파열음으로 나타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은 중고음과 일치하여 고음인 파열음 ‘ㄷ’ 및 ‘ㅌ’과 분화된 후음인 ‘ㅇ’로 나타난다.

## 2) 以母와 치음

<표5> 以母와 치음

한자	중세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어 한자음	字母	又音	又切
洋	양	양	yáng	以	祥	
			xiáng	邪		與章
野	야	야/여	yě	以		承與

7) 文璇奎(1987:241-245)본고는 喻母 4등을 餘母라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以母라고 한다. 용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餘 대신에 以로 한다.

		서	shù	禪		與者
余	여	여	yú	以		
			yú	禪		以諸
燾	약	약	yuè	以		書藥
		삭	yuè	書	藥	
施	이	이	shī	以		式支/施智
	시	시	shī	書		式豉/以寘
			shī	書		式支/以豉

**가: 以母와 치두음인 邪母**

洋의 성부는 以母인 羊이다. 중고음에 洋의 성모는 邪母와 以母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문선규(1987:241)에 의하면 중고음에 나타난 以母와 邪母는 모두 상고음인 유성 무기음 [d]에서 분화된 것이며, 그렇다면 두 성모의 본래음은 똑같다. 따라서 <표1>에서 제시한 羊계 형성자 중에서 일부 한자가 중고음에 邪母로 나타나고, 邪母의 음가는 중세 한국어 자음체계에 따르면 마찰음인 ‘ㅅ’에 해당된다. 따라서 ‘羊’ 성부인 일부 형성자가 중세 한국어 한자음에 ‘ㅅ’로 나타난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以母의 음가는 [Ø]이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에 羊 성부인 형성자 ‘洋’의 성모는 ‘ㅇ’로만 수용하였다.

**나: 以母와 정치음인 書·禪母**

<표5>에서 제시한 野의 성부는 以母인 予, 余는 성부이며 그의 성모는 以母이다, 燾의 성부는 以母인 龠이고, 施의 성부도 以母인 也이다. ‘野, 余, 燾, 施’의 성모는 모두 以母이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 한자음은 모두 ‘ㅇ’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표1>에서 제시한 같은 계열의 형성자 杼, 序, 紆, 苧, 徐, 敍 등의 성모가 마찰음인 ‘ㅅ’로 나타난 것도 있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 중에서 성부가 같은 일부 형성자의 성모도 以母 이외에 마찰음인 ‘ㅅ’로 나타난 것도 있다. 이는 以母와 禪母, 以母와 書母는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文璇圭(1987:241)의 주장에 따르면 以母는 유성 무기음인 [d]에서 분화된 음이고, 禪母는 유성 유기음인 [dʰ]에서 분화된 음이다. 以母와 禪母의 고음이 유사해서, 또한 유사한 분화 과정을 겪고 중고 시기에 와서 두 음을 유사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書母의 본래음은 상고음에서 분화된 透母이다. 따라서 중고음에서는 以母, 禪母, 書母의 음가가 다르지만 그들의 고음 음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형성자가 서로 통용될 수 있다.

禪母의 음가는 유성 무기 마찰음인 [z]이고 書母의 음가는 무성 무기 마찰음인 [ç]이다. 이들은 중세 한국어 자음체계에 따르면 치조 파열음인 ‘ㅅ’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1>에 제시한 予계, 余계, 易계, 易계, 羊계 등 以母 성부인 형성자 중에서 일부 한자의 성모가 ‘ㅅ’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표5>에 제시한 野, 爰는 중세 한국어 한자음은 以母의 성모만 수용하지만 현대 한국어 한자음은 분화된 다른 하나의 음도 받아들인다. 施는 중세 및 현대 한국어가 /d/에서 분화된 以母와 書母를 모두 받아들였다.

### 3) 以母와 아음

<표6> 以母와 아음

한자	중세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어 한자음	字母	又音	又切
喬		울/홀	yù	以		
		결	jué	見		
緇	홀	결	jué/jú	見		餘律
		울	yù	以	橋	
譎	홀	홀/결	jué	見		
鷓	홀/물	홀/울	yù	以		

<표6>에서 제시한 한자의 성부의 성모는 以母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국 한자음의 성모는 ‘ㅇ’ 이외에 연구개 파열음인 ‘ㄱ’ 또한 후음 마찰음인 ‘ㅎ’로 나타난 것도 있다. 그의 중고음 성모는 주로 以母와 아음인 見母이다. 즉 以母와 見母 사이에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고음의 성모체계에 따르면 무성 무기음인 p, t, k는 그와 대립되는 무성 유기음인 p<sup>h</sup>, t<sup>h</sup>, k<sup>h</sup>가 있다. 중고음 성모체계에 유성 유기음인 b<sup>h</sup>, d<sup>h</sup>, g<sup>h</sup>는 오로지 유성 유기음인 b<sup>h</sup>와 대응되는 유성 무기음인 v가 있을 뿐이고<sup>8)</sup>, 유성 무기음인 d, g는 중고음에서 없어졌다. 이에 대해서 陳新雄(1983:1204)은 성모 d, g가 중고음에 와서 모두 以母에 감춰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성부 ‘勻’과 형성자 ‘均’의 관계를 통해 입증되었다. /g/는 유성 무기 아음이고, 見 /k/는 무성 무기 아음이다. 음가의 차이를 보면 단지 유무성의 차이만 있다. 상고음에 /g/와 /k/ 음가의 유사성 때문에, 중고 시기에 와서 /g/는 以母로 변화된 것과 혼동되어서 일부 見母字도 以母로 변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표1>에서 제시한 齠계 및 亦계 형성자 중에서 일부 한자는 以母이면서 見母이다.

以母로 나타난 형성자의 성모는 ‘o’로 나타난 것이 당연하지만, 見母의 음가는 무성 무기 아음인 [k]이며 한국어 성모체계에 따르면 이는 ‘ㄱ’에 해당한다. 그러나 見母인 齠·繡·譙·鷗는 중세 한국 한자음에는 ‘ㅎ’로 나타난다. 이토지유키(2001:176)를 통해서 여러 학자가 齠 성부인 형성자 성모가 ‘ㅎ’로 나타난 이유를 해석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박병채(1971:50)는 繡·鷗(홀)을 曉母인 獠에서 유추하였지만 이에 대해 이돈주(1990:84)는 齠성부인 曉母가 아주 적고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繡 성부인 형성자가 韻書에서는 ‘결’로 나타나지만 그의 속음은 ‘홀’이라고 해석한 것도 있다. 河野六郎(1968:362)은 ‘ㅎ’은 이러한 牙喉音적 요소의 약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거나 以母와 云母<sup>9)</sup>가 합류하기 전 단계에 둘 사이에 혼란이 생겨 원래 以母인 글자가 云母[h]를 취한 일도 있다고

8) ‘古無輕唇音說’에 의하면 中古前期에 순중음 ‘幫旁並明’만 있다. 중고후기에 와서 순경음인 ‘非敷奉微’가 순중음에서 분화된다. 竺家寧(1992:450)에 근거하여 유성 무기 순중음인 並母[b]가 3등 개음의 영향을 받아서 中古後期에 와서 유성 무기 음인 奉母[v]가 되고 후에 非敷母와 합병하여 현대한국어에 [f]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竺家寧(1992:451)에 의하면 云母와 以母는 약 10세기에 喻母로 합병된다. 云母는 喻母 3等, 以母는 喻母 4等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였다.

필자는 以母와 云母 두 성모가 喻母로 합류하는 전 단계에 생긴 혼돈이라는 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세 한국어 자음체계에 따르면 云母의 음가는 ‘ㅎ’에 해당한다<sup>10)</sup>. 따라서 일부 以母인 齣계 형성자의 중세 한국어 자음이 ‘ㅎ’로 나타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는 以母인 齣계 형성자가 ‘ㅇ’로 나타난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ㄱ’로 나타난 것은 그의 본래음인 ‘見母’로 나타난 것이고 ‘ㅎ’로 나타난 것은 云母처럼 잘못 인식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 3.2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 성모 양상 유형

형성자의 원리에 따르면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는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성부이지만 성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많다. 이 절에서 성부의 성모가 以母가 아니지만 형성자의 성모는 以母인 以母字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2>에서 제시한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를 보면, 以母字의 성부의 성모는 주로 설음에 속한 설두음인 透母와 설상음인 澄母가 있고, 치음에 속한 치두음인 從母와 정치음인 章母와 書母가 있다. 또한 아음에 속한 見母 및 순음에 속한 滂母가 있다.

#### 1) 설음과 以母字

<표7> 설음와 以母字

한자	중세 한국어	현대 한국어	현대 한어	字母	又音	又切
----	--------	--------	-------	----	----	----

10) 周祖謨, 羅常培 등의 연구에 의해서 竺家寧(1992:565)은 云母와 匣母는 5세기 말까지는 같은 성모라고 주장하였다. Wang Linqun(2011:59)에 의해서 <훈몽자회> 중에서 출현한 176개의 匣母字의 초성 양상을 확인하여 그 중에서 158개(90%)의 匣母字 자음 양상은 ‘ㅎ’로 나타나고 나머지 18개(10%)가 ‘ㄱ’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云母의 古音은 匣母와 같기 때문에 云母字 중에서 일부 글자의 성모는 古音을 유지하여 ‘ㅎ’로 나타난다.

	한자음	한자음	한자음			
台	타	이	yí	以	胎	
		태/대	tái	透		與之
治	야	야	yě	以		
怡	이	이	yí	以		
胎	이	이	yí	以		丑吏
蟲	통	충/동/혜	chóng	澄		直衆
			zhòng	澄	沖	
融	룽	융	róng	以		

이상 제시한 以母字는 중고음의 성모가 以母가 아니다. 그러나 성부 台의 성모는 以母와 透母가 있으나 又음을 통해서 台의 본래음 성모는 透母이다. 성부 蟲의 성모는 澄母이다. 陳新雄(1983: 1173)과 文璇圭(191987:241)에 의하면 以母는 상고 시기의 유성 무기 파열음인 [d]에서 분화된 음이다. 透母는 상고 시기의 무성 유기 파열음인 [tʰ]에서 분화된 음이다. 또한 澄母는 상고음 유성 유기음인 定[dʰ]에서 분화된 음이다. 以母의 古音과 澄母 및 透母의 古音은 음가가 비슷해서 통용 가능하다. 따라서 透母인 台계 형성자와 澄母인 蟲계 형성자가 以母字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중고음에 融의 성모는 以母이다. 그 음가에 따르면 중고음을 수용한 한국 한자음의 성모도 ‘오’로 나타나야 하지만 중세 한국어 融의 성모는 ‘르’로 나타난다. 오히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는 중고음 음가와 일치하게 ‘오’로 나타난다. 이토지유키(2001:184)가 ‘融(룽)’은 당시의 중국어에 있어서 어떤 실제적인 발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현대 중국어 北京 방언에서도 ‘róng’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 한자음에 성모가 ‘르’로 나타난 한자는 주로 來母字이다. 예를 들어, 來母인 來·萊, 郎·朗 등이 있다. 뒷 부분에 살펴볼 성부 谷의 성모도 주로 見母, 來母, 以母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중고음에 見·來·以母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음을 수용한 한국어 한자음에 以母인 融을 수용할 때 來母와 以母의 혼란으로 인해 來母처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 2) 치음과 以母字

<표8> 치음과 以母字

한자	중세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어 한자음	字母	又音	又切
儻		추	qiú	從		
猶	유	유/요	yóu	以		居祐/余救
			yóu	以		居祐/以周
猷	유	유	yóu	以		
輜	유	유	yóu	以		移授/易受
			yóu	以	由	余救
			yóu	以	由	與久
佳	초	추/취	zhūi	章		
惟	유	유	wéi	以		
維	유	유	wéi	以		
唯	유	유/수	wéi	以	惟	
			wéi	以		以癸
失	실	실/일	shī	書		
佚	일	일/질/절	yì	以		
			dié	定		
洸	일	일	yì	以		徒結
			dié	定		夷質

<표8>에 제시한 以母 형성자의 성부의 성모는 以母가 아닌 것이다. 성부 儻의 성모는 從母이고, 성부 佳의 성부는 정치음인 章母이며, 성부 失의 聲母는 정치음인 書母이다. 모두 치음에 속한다. 먼저 중고음에 從母의 음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竺家寧(1992:293-297)을 통해 Karlgren과 董同龢가 [dzʰ]로 재구하고, 王力은 [dz]로 재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文璇圭(1987:241)가 제시한 邪母의 분화 과정에는 그 중간 단계에 [dz]로 나타난 흔적이 있다. 유성 무기음인 [d]가 [dz] 단계로 오는 시기에 從母의 음가는 이와 유사해서, [dz]에서 邪母와 以母로 분화하는 것처럼 從母로 나타난 일부 한자가 以母로

분화된다. 따라서 성부의 성모가 從母인 형성자는 그 성모가 以母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를 수용한 중세 한국 한자음 [o]로 나타난 것이다.

성부의 성모가 章母이나 書母인 형성자가 以母로 나타난 것도 있다. 앞 절에서 이미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인데 그 형성자의 성모가 以母가 아닌 章母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章母[ɕ]는 상고음인 端母[t]에서 분화되고, 書母[ɕ]는 상고음인 透母[tʰ]에서 분화되고, 以母[ø]는 상고음인 유성 무기음인 [d]에서 분화된 음이다. 章母, 書母, 以母는 상고음의 음가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章母, 書母, 以母는 본래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통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음에 성부 ‘失’의 성모는 書母로, ‘佚’의 성모는 以母로 각각 하나의 성모로만 나타나지만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는 성부 ‘失’과 ‘佚’의 성모가 ‘o’로 나타난 것도 있고, 전자는 ‘s’로, 후자는 ‘ʃ’로 나타난 것도 있다. <廣韻> 및 <集韻>에는 운서에 ‘失’의 성모는 書母로만 나타나지만 <홍무정운>에 ‘失’의 성모는 以母로 나타난다. ‘佚’의 경우는 중고음을 수용한 중세 한국어 한자음은 以母로만 수용하지만 현대 한국어 성모 양상을 보면 以母뿐만 아니라 고음인 定母도 수용한다. ‘佚’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의 성모 양상은 그 한자의 중고음 성모와 일치하게 수용한 경우가 더 많다.

### 3) 아음과 以母字

<표9> 아음과 以母字

한자	중세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어 한자음	字母	又音	又切
戈	과	과	gē	見		
柀	익	익	yì	以		
鳶	연	연	yuān	以		
谷	곡	곡	gǔ	見	欲/鹿	其虐
		록	lù	來		如蜀/

						其虐/ 古祿
		욕	yù	以	穀	其虐/ 盧谷
欲	욕	욕	yù	以		
浴	욕	욕	yù	以		
慾	욕	욕	yù	以		
裕	욕	욕	yù	以		

성부 戈의 성모는 見母이다. 성부의 성모가 見母이지만 杝의 성모는 以母로 나타난다. 형성자의 제자 원리에 따르면 見母와 以母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陳新雄(1983:1204)은 상고음에 있는 유성 무기 파열음인 /d/, /g/가 중고음에 모두 以母에 감춰져 있다고 하였다. 見母의 음가는 무성 무기 아음인 [k]이다. 見母의 음가는 유성 무기 아음인 /g/와 유사하기 때문에 /g/가 以母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見母의 일부 한자도 以母로 변화된다.

궁계 형성자의 성부의 성모는 見母이지만 그 見母에서 분화된 일부 형성자의 성모는 以母이다. 중고음에 以母의 음가는 [ø]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한국어 한자음에는 /o/로 나타난 것이 일반적이다. 谷의 성모가 來母와 以母로 나타난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다. ‘谷蠡王’이란 오랑캐 官名을 가리킬 때만 ‘谷’의 성모가 來母로 나타나고, ‘土谷渾’이란 少數民族을 가리킬 때만 ‘谷’의 성모가 以母로 나타난다. 見母로 사용한 빈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에 ‘谷’의 성모를 주로 見母를 취한다. 성부의 성모가 見母로만 수용하지만 谷 성부인 형성자는 중세 한국어 한자음과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는 以母로 나타난 형성자도 적지 않는다.

見母와 來母의 관계는 학자들이 주로 상고 복수 성모 때문이라고 한 견해가 많다. 예를 들어 聲符 ‘各(각)’와 형성자 ‘洛(락)’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來母와 見母는 복수 성모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성모의 분화 때문에 중고음에 見母와 來母로 분리된다.

#### 4) 순음과 以母字

<표10> 순음과 以母字

한자	중세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국어 한자음	현대 한어 한자음	字母	又音	又切
甬		병	píng	滂		普耕
漉	빙	영	yíng	以		

‘漉’의 성부는 滂母인 ‘甬’이다. ‘甬’이 성부로 사용한 형성자는 ‘漉’만이 있다. 聘, 騁, 娉, 俇 등 형성자 중에서 ‘甬’은 形符 兼 聲符로 사용된다. 형성자의 원리에 따르면 ‘漉’은 성부의 성모에 따라 ‘ㅂ’로 나타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고음 ‘漉’의 성모는 以母이다. 以母의 음가는 [Ø]이기 때문에 중고음을 수용한다면 중세 한국어 한자음인 ‘漉’의 성모는 ‘ㅇ’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이토지유키(2011:182)는 이를 예외로 처리하고 ‘漉(빙)’은 滂母인 ‘聘(빙)’에서 유추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중세 문헌에 ‘漉’이 ‘ㅂ’로 나타난 예가 많지 않다. 이 글자를 수용할 당시에 ‘漉’의 음에 대해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순경음인 奉母가 순중음인 滂母에서 분화된 과정에서 일부 한자의 성모가 탈락해서 ‘以母’로 나타난 유형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재해석하는 단서로만 제시한다.

### 4. 나가기

중세 한국어 한자음 중에서 以母字는 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성부의 성모가 以母인 형성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以母字이다. 중고음에 以母의 음가는 [Ø]이기 때문에 중고음을 수용한 중세 한국어 한자음에 以母字의 성모가 ‘ㅇ’로 나타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부가 같은 형성자 중에서 성모가 ‘ㅇ’ 이외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도 있는데, 파열음인 ‘ㄷ’나 ‘ㅌ’, 마찰음인 ‘ㅅ’, ‘ㅎ’ 등이다. 성모가 파열음인 ‘ㄷ’나 ‘ㅌ’로

나타난 형성자의 중고음 성모는 주로 설두음에 속한 透, 定, 徹, 澄母가 있다. 성모가 마찰음인 ‘ㅅ’로 나타난 형성자의 중고음 성모는 치음인 ‘邪母’와 ‘禪·書母’가 있다. 후음 ‘ㅎ’로 나타난 형성자의 중고음 성모는 주로 見母가 있다. 以母의 실체는 상고음인 유성 무기 파열음인 /d/와 /g/였다. 이것이 중고음에 와서 모두 以母로 변한 것이다. /d/에서 분화된 以母 형성자는 주로 설두음에 속한 透, 定, 徹, 澄母인 以母 형성자 및 치음에 속한 邪, 禪, 書母인 以母 형성자와 통용되고, /g/에서 분화된 以母 형성자는 주로 牙音인 見母와 통용되었다. 현대 한국어 중에서 以母字가 두 개의 성모가 있는 경우, 그 중에 ‘오’로 나타난 것은 중고음인 以母의 음가이고, ‘오’ 이외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以母로 분화된 전 단계의 고음 흔적이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성부의 성모가 非以母인 형성자가 ‘오’로 나타난 양상을 예외로 처리하였다. 非以母인 以母字의 성부의 성모는 주로 설두음에 속한 透, 澄母가 있고, 치음에 속한 從, 章·書母가 있고, 아음인 見母 및 순음에 속한 滂母가 있다. 형성자의 원리에 따르면 형성자의 성모는 성부의 성모와 같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非以母 성부인 형성자의 성모는 ‘오’로 나타날 리가 없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오’로 나타난 非以母 성부인 형성자를 예외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以母의 실체를 통해서 이들을 해석할 수 있었다. 성부의 성모가 透, 澄母인 以母 형성자는 상고음의 유성 무기음인 /d/에서 분화된 以母字이었다. 從, 章·書母인 以母 형성자는 상고음의 유성 무기음인 /d/에서 以母로 변화된, 즉 이전 단계의 음과 유사해서 같이 以母로 변화된 일부 한자였다. 見母인 以母 형성자는 유성 무기음인 /g/에서 以母로 변화된 과정에서 見母의 음가가 /g/와 유사해서 같이 以母로 변화된 일부 한자였다. 성부의 성모가 滂母인 以母字는 예가 많지 않아서, ‘ㄹ’을 수용할 당시에 以母로 나타난 ‘ㄹ’계 형성자가 하나뿐이어서 성부의 성모 그대로 수용하여 ‘ㄹ’로 나타난 것이다. 성부가 滂母인 ‘ㄹ’가 以母로 나타난 것은 순중음에서 순경음으로 분화된 과정에서 滂母가 탈락하고 성모가 없어져 以母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는 以母의 음가로 반영된다.

중고음에 以母의 음가는 [ø]이기 때문에 중고음을 수용한 중세 한국어 한자음 중에서 以母 형성자의 성모가 주로 ‘ㅇ’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의 현대 한국어 한자음을 보면 以母와 그의 고음을 같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康熙字典』, 內府本  
『康熙字典』, 同文本  
『說文解字』, 汲古閣本  
『說文解字』, 和刻本  
『說文解字』, 孫刻本  
『說文解字注』  
『說文通訓定聲』  
『漢語大字典』  
『漢字源流字典』  
『訓蒙字會』, 叡山文庫(影印)本, 弘文閣.

### 2. 논저 및 단행본

- 권인한(2008),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改訂版)』, 서울: 제이앤씨.  
김춘자(1961), 「‘ㅇ’ ‘ㅇ’音攷」, 명지언문학회, 121-132쪽.  
杜金鵬(2010), 「韓·中國語 漢字音 變化 研究 - 翻譯老乞大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문선규(1987), 『중국고대음운학』, 서울: 민음사.  
박병채(1982), 『고대국어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박병채(1987), 「한국 한자음의 모태와 변천」, 『국어생활』8, 6-14쪽.  
박창원(2014), 「국어사의 새로운 이해(1) -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32, 171-214면.  
서영석(1984), 「중세국어의 후음연구(3): ‘ㅇ’의 音價推定을 中心으로」, 동경어문논집, 39-68쪽.  
李繼征(2015), 「중세국어 복수한자음 연구 -성모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돈주(1979), 『漢字學總論』, 서울: 博英社.  
 (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서울: 塔出版社.  
 (2003), 『韓中漢字音研究』, 서울: 태학사.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강의』, 서울: 삼경문화사.
- 이토지유키(著), 이진호(譯)(2011), 『한국 한자음 연구』, 서울: 영락.
- 허용(2000), 「중세국어 ‘ㅇ’의 음가 해석에 대한 재고」, 현대문법학회, 1-22쪽.
- 董同龢(1972), 『漢語音韻學』, 學生書局.
- 潘重規. 陳紹棠(1978), 『中國聲韻學』, 東大圖書公司印行.
- 李方桂(2015), 『上古漢音研究(第6次重印)』, 商務印書館.
- 陳新雄(1983), 『古音學發微』(3版), 文史哲出版社.
- 竺家寧(1992), 『聲韻學』, 五南圖書.  
 (2016), 『語音學音之旅』, 新學林.
- Wang Liqun(2012), 「韓國漢字音 初聲과 漢語 聲母의 對照 研究 - 訓蒙字會 漢字를 中心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s】

## A diachronic study of the initial's aspects of 'yi' characters

– Centered xiesheng characters –

Zhang, Qian

This article found the original sound of phonetic element(聲符) 'yi' to explain why some xiesheng Character's Initials are different even though they have the same phonetic element 'yi'. Also some xiesheng character's initial is 'yi', though the phonetic element is not 'yi'. Compare to 15-6C Korean Chinese, the Modern Korean 'yi' xiesheng character's initial aspects are closer to Middle Chinese.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yi' initial's aspects of the 15~6th centuries and modern Korean.

In Middle Chinese, 'yi' initial's phonetic value was reconstructed as [ø], it should be [o] in 15~6th centuries's Korean according to the consonant system. But except 'o', the 'yi' xiesheng characters have various aspects, such as 'ㄷ', 'ㄷ', 'ㅌ', 'ㅌ', 'ㅎ'. It related to 'yi's original sound /d/ and /g/. Some xiesheng characters' phonetic element is not 'yi', but the new xiesheng character's initial is 'yi. It also related to 'yi's original sound. Because 'yi's original sound is similar to 'tuo(透), cheng(澄), cong(從), zhang(章), shu(書). Some of them was taken as 'yi' due to 'tuo(透), cheng(澄), cong(從), zhang(章), shu(書)'s differentiation from Old Chinese to Middle Chinese. Some character's initial is single aspect in 15~6th centuries Korean, but in Middle Korean the initial's aspects are plural. The Modern Korean 'yi' xiesheng characters' initial

type is more similar to Middle Chinese than 15~6th centuries.

**Key words** : 'yi' xiesheng characters; original sound; Middle Chinese;  
15~6th centuries' korean; Modern Korean

이 논문은 2019년 06월 2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